

# 세상에 없는 박물관

(시나리오 및 배역 참고용)

※본 내용은 배역 이해를 위해 시나리오의 일부분을 담았으니 읽으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 S#1. 현재 /아파트 입구/ 오후 - 4시 경

재현이 이사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중 전화가 온다.

재현

(이사 박스를 무릎 위에 받치고 올리는 전화기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받는다.)  
여보세요?

재현은 전화를 받으며 우편함을 쳐다본다. 우편함에 우편이 잔뜩 쌓여있다. 재현은 그 종이들을 빼서 상자 위에 놓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재현

(핸드폰을 고개로 고정하고 계단을 오르며,)  
아~ 네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재현의 앞에서 모자를 쓴 해준이 걸어 내려온다. 재현의 시선은 잠시 해준 쪽으로 향한다. 재현은 내려오는 해준을 피해 올라간다. (황해준 주황모자) 해준이 모자를 꼭 눌러쓴 채 내려온다.

재현

(집 앞에 도착한다. 멈추고 전화를 끊는 재현. 현관문에 전단지 하나 붙어있다)  
구인?  
(재현은 전단지를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간다.)

#### S#2. 현재 / 집 안 / 4시 경

재현은 손에 들고 있는 전단지를 책상 위에 두고 이사 박스를 책상 오른쪽 아래에 둔다. 그리고,  
쭈그려 앉아 이사 박스 위에 두었던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재현

두고 갔나?

재현은 우편을 다시 모아 박스 옆에 가지런히 놓는다. 박스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친다. 재현은 의자에 앉고 노트북이 켜지는 동안 책상 위에 두었던 전단지를 들어 본다.

<박물관 관리자 구인 글>

"오직 하나의 전시물.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의 전시물만을 가진 아주 작은 박물관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호기심과 인내를 가지고 전시물을 관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구인 직무: 박물관 관리 및 안내

근무 장소: 서울 모처의 비공개 박물관

근무 시간: 주 3일, 시간 협의 가능

자격 요건: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분

특별 우대: 대학생

지원 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 지원 (연락처: 010-XXXX-XXXX)

접수 기간: 채용 시까지

"이곳에서 만날 유일한 전시물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재현**

(턱을 어루만지며 전단지를 본다. 전화길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며 전화를 건다)

네 여보세요?

(전단지를 바라보며)

전단지 구인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S#4 현재 / 박물관 내부 / 5시 경**

**재현**

(문 앞에서 서서 문패를 읽는다)

불법으로 남은 혁신...

재현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재현**

(쭈뼛거리며)

저... 안녕하세요? 계세요?

재현은 두리번거리며 방을 돌아본다. 방의 중앙에는 유리관으로 보관되어 있는 전시대가 하나가 있다. 재현은 그 전시관으로 다가가 안의 물건을 쳐다본다. 그때 재현의 뒤에서 박물관 주인, 황해준이 나타난다.

**해준**

그건 쿠키예요.

**재현**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해준

(잠시 반응을 살피고)

그냥 쿠키는 아니고 많이 특별한 그런 쿠키라고 할 수 있죠.

(악수를 건내며)

반가워요.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뭐 하게 작지만... 박물관 관장 황해준입니다.

관람하러 오셨나요?

재현

(뻗었던 손을 멍뚱뚱 걸으며, 두 손을 모은다.)

아니요! 저, 그... 알바, 구하신다길래...

해준

(박수를 치며)

아...~! 최재현씨

(열쇠가 걸려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내 재킷 안에서 수첩을 꺼내 수첩에 재현의 이름을 써내려가며)

음~ 대학생?

재현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해준

(쓰던 볼펜을 수첩에 끼워 수첩을 닫은 뒤, 열쇠가 걸려있는 벽으로 천천히 이동)

따라오세요.

재현

네?

해준

(해준은 멈춰 뒤를 돌아본다. 고개를 갸웃하며 재현을 바라보다 자신 쪽으로 오라며 수첩을 든 손을

휘적인다.)

얼른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알려드릴게 많습니다!

(숨을 한번 쉬고)

하하, 농담~ 사실 별로 없어요

(다시 열쇠 쪽으로 향한다)

재현

(따라가며)

하하...

해준

(열쇠 앞에서 멈춰서 리모컨을 자켓에서 꺼내고)  
컨트롤은 다 이 리모컨으로 해요  
(버튼을 하나 하나 가르키며)  
이건 히터, 이건 조명, 이건 저쪽 불. 쉽죠?  
(열쇠를 살짝 건들며)  
그리고 이쪽에 걸려있는 열쇠가 전시관 열쇠예요. 퇴근하기 전에,  
(전시관 쪽을 보며)  
한번 열어서 먼지만 좀 털어주시면 돼요. 아 먼지 털이는 저쪽에  
(먼지 털이가 걸려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재현

아... 넵...!

해준

요즘은 손님 별로 없을 거예요. 찾더라도 극 소수의 매니아 들이지.  
지금은 사라졌는데... 혹시 <달세라프> 라는 큰 박물관 안 가봤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박물관인데,  
(리모컨을 다시 자켓 안으로 넣으며)

재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해준

(어깨를 으쓱하며)  
원래 여기 있던 저 쿠키도  
(전시대를 쳐다보며)  
그 박물관에서 전시하던 거예요.  
(천천히 전시대로 걸어가며)  
근데 이제 뭐 현실적인 이유에 막혀서 나머진 다 처분하고,  
이제 딱 저거 하나 남아서 이런 작은 건물에 전시 중인거죠.

재현

(뒤 따라가서 전시대 앞에 같이 선다)  
이 쿠키가요?

해준

(능청스럽게, 진지하게.)  
저를 이 허름한 박물관에 서게 한 기념품이죠.  
'에너지 갈취 사건' 기억해요?

S#7. 회상씬 3 / 강의실 / 오전 11시 경

도윤이 책상에 엎드려있다.

**도윤의 친구 1(예찬)**

(엎드려 있는 도윤의 어깨를 친다)

야 가자 수업 끝났어

도윤은 일어나지 않는다.

**도윤의 친구 1(예찬)**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흔든다)

야 가자고 과방 가서 자

**도윤**

(뒤척거리며)

아 먼저가

예찬은 도윤을 포기하고 강의실을 떠난다. 혼자남은 도윤에게 해준이 다가간다.

**해준 NA**

제가 개발 중인 도구가 학생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해준은 도윤의 앞 책상에 살짝 걸터앉은 채로 있다가 헛기침을 두 번 한다.

도윤은 교수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다.

**도윤**

(상황 파악을 하는 듯이 멍 때리다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도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긴다. 급하게 챙기다가 필기도구 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진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쪼그려 앉아서 필기도구를 줍는다.)

죄송합니다.

**해준**

(도윤이 떨어뜨린 필기도구를 줍는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요즘 피곤한 일이 많나봐?

**도윤**

죄송합니다...

**해준**

아냐아냐 나도 알지, 지금 너희가 잠잘 시간도 거의 없는 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주운 필기구를 건넨다)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운은 해준이 건네주는 필기구를 받으며 해준과 눈을 맞춘다.

**S#14 과거 회상 씬 9 / 여러 장소 / 여러 시간**

도운이 쿠키를 먹고 다른 사람을 터치한다. 이 행동은 낮과 밤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에게 이뤄진다.

**해준 NA**

제자는 그 쿠키를 사용해 밤이고 낮이고 해야하는 일은 물론,  
하고 싶은 일까지 다 처리했죠.

**S#15 현재 / 박물관 / 5시 50분 경**

**재현**

(해준을 바라보며)  
그런데요?

**해준**

뭐라고요?

**재현**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제자가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해준**

(눈썹을 찡그리고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데...

**S#16 과거 회상 씬 10 / 강의실 / 4시 경**

**도운**

(심장에 손을 가져다 대며)  
히익...

**S#20 과거 회상 씬 13 / 동그란 양탄자 위 / 오전 11시 경**

도윤은 쿠키 통을 들고 쿠키를 한입 먹고 뒤로 쓰러진다. 도윤은 기이한 패턴이 그려져 있는 양탄자 위에 누워 마저 쿠키를 먹는다. 들고 있던 쿠키 통에서 쿠키들이 쏟아져 나온다. 도윤의 주위에는 쿠키가 펼쳐져 있다.

도윤은 웃으며 마치 눈 천사를 그리는 것처럼 양팔과 양 다리를 휘적거린다.

그리곤 심하게 기침하다가 먹던 쿠키를 기침과 함께 뱉어낸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다.

**S#21 현재 / 박물관 / 오후 6시 10분 경**

재현은 혼자 박물관에 남아있다. 재현은 박물관을 한번 크게 돌아보다가, 다시 전시대 앞에 선다. 그리곤 전시대의 유리관에 손을 맞대어 쿠키를 바라본다. 재현은 박물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시간이 지나간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재현은 전시대 앞에 멈춰서 수첩을 들고 도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페이지를 편다.

핀 수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전시대를 번갈아 본다. 점점 초침 소리가 느려진다.

수첩을 올리면 전시대가 보이지 않고, 수첩을 내리면 전시대가 보인다.

재현은 천천히 수첩을 내린다.

**S#22 현재 / 사무실 겸 CCTV 실, / 오후**

쿠키 봉지가 보이고, 그것을 들고 들어오는 해준의 사원증이 보인다.

**해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CCTV 앞 의자에 앉아 턱을 만지며)

이럴 줄 알았죠~

CCTV 화면엔 전시대의 유리관을 열고 쿠키를 가져가는 재현의 모습이 비친다

**해준**

(쿠키를 하나 꺼내 먹고 목에 건 사원증을 빼 도윤의 방 계약서 위에 던지며)

음~ 어우 달아

(쿠키 봉지를 들어 보며)

...어우 못 먹겠다, 괜히 빼 왔네.

(해준은 쿠키를 쓰레기 통에 넣는다. 이내 우유를 찾으러 타령을 하며 나간다.)

우유가 어딴더라~



CCTV 책상 앞에는 자취방에 지냈던 여러 사람들의 방 계약서와 그 위로 재현의 방 계약서가 보인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주황 모자가 자리하고 있다. 책상 위 해준의 사원증 아래로 도운의 방 계약서가 보인다.